

음악 교육과정 성취기준 관련 국내 연구 동향 고찰

A Study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n Music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in Korea

김재중*

Jaeyung Kim

초록 본 연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관련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여, 음악교육과 음악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성취기준 운동과 성취기준의 이론적 배경을 탐구하고, 국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28편을 대상으로 동향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취기준과 관련한 연구는 학술논문이 학위논문보다 많았으며, 성취기준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서대로 연구가 많았다. 성취기준의 빈도수를 분석을 실시했을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취기준이 고르게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성취기준을 활용한 음악 교육과정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주제어: 음악 교육과정, 음악 성취기준, 국내 연구, 동향 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oundational investigation into trends in Korean research on educational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within the context of music education. To achieve this objective, an examination was conducted on 28 academic papers and theses, explor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chievement standards and the Standard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a prevalence of academic papers over theses in achievement standards-related research, with a significant focus on studies analyzing achievement standards. Literature review emerged as the predominant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was conducted more extensively in elementary,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levels, in that order. An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achievement standards revealed a uniform occurrence across most standards, excluding the 2009 revised curriculum. Consequently,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achievement standards with diverse topics and methodologies.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xploring music education curriculum research using various achievement standards acros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Key words: music curriculum, music standards, Korean research, trend studies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jj0122@snu.ac.kr

Student Researcher(Ph. D. degree co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3, Reviewed (Revised): 31 December 2023 (5 January 2024), Accepted: 25 January 2024

© 2024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음악 교과와 특성을 살린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취기준’이라는 용어는 7차 교육과정부터 국가 교육과정과 별도로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Lee, Jang & Park, 2012). 6차 교육과정에 비해 보다 행동주의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성취기준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로서 교육과정 개혁의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Sung, 200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한 후, 이를 성취기준 문장으로 표현하였고,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여 학습과 평가활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즉, 수업과 평가에 대해 성취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성취기준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Kim, 2018), 음악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Bloom의 신 교육 목표 분류학의 틀에 근거하여 분석한 연구(Kim, 2020) 또한 수업과 평가의 맥락에서 성취기준이 중요함을 뒷받침한다. 성취기준에 대한 맥락적, 구조적 이해는 결국 음악 수업의 질적 제고 향상으로 이어진다. 음악 교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교육과정에서 담았다면, 성취기준은 배워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실제로 학생이 성취기준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 준거를 포함하고(Lee, Jang & Park, 2012)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문서에 역량의 담론이 들어오면서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은 좀 더 복잡한 변화 양상을 띄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독일 등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성취기준에 음악적 역량과 음악적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활동과 행동 외에도 음악적 지식, 가치, 태도까지 성취 수준으로 포함하여 진술된다고 하였다(Park & Kim, 2021). 음악적 역량의 개념을 교육과정 문서 안에 포함하는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고(Lim, 2016; Seog & Choi, 2022), 이러한 역량들은 성취기준, 음악 수업 및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Jang, 2019; Kim, 2019; Yang, 2020). 따라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수업과 평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안에 성취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문해력이 요구된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가 교사마다 다르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교사들이 역량 개념이 도입된 교육과정 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진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Lee, 2022), 학교급마다 음악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에서 교사들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Shin, 2022). 따라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인식과 수업에서의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음악교육의 동향 분석과 관련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초등 음악 창작교육 관련 연구(Park & Kim, 2012), 음악교육의 심리연구 동향(Hyun, 2018), 교수 매체를 활용한 국내 음악교육의 동향 분석 연구(Kwon & Kim, 2019), 모바일 앱 활용 음악 수업 동향 연구(Kim & Kim, 2020), 음악교육에서의 평가 연구 동향 분석(Yoon, 2020), 음악교육 국제학술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발달연구 동향(Park, 2021), 음악 교사 행위 주체성의 국외 연구 동향(You, 2023) 등이 실시되었으나, 이들 중 성취기준에 관한 동향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성취기준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성취기준의 배경이 되는 1990년대 미국의 성취기준 운동과 성취기준의 이론적 배경을 탐구하고, 국내 성취기준 관련 학술논문과 학위 수여 논문 20여 편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미국의 1990년대 성취기준 운동

199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성취기준 운동(Standards Movement)은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었다. 이때 기준(Standards)이란,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성취해야 하는 공통 기준을 의미한다(Kim, 2016). 1983년 발행된 미국의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al at Risk)’는 미국 교육부에서 위촉한 수월성에 관한 국가위원회에서 당시 대통령과 미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펴낸 총체적인 교육에 관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1970년대 후반의 교육 운동이었던 ‘기초로의 복귀 운동’에 대해 위험한 징후와 객관적인 증거들을 공개적으로 낱낱이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기초로 복귀하고자 실시된 최소 수행능력검사가 최고 수행능력 검사처럼 둔갑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기초기능 및 전반적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지표를 통해 국가교육의 위기를 보여주었다(Kim, 1999).

김동창(Kim, 2016)은 자신의 연구에서, 이런 성취기준 운동은 국가적인 운동의 산물로서, ‘기준(Standard)’이란 그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을 의미하거나, 또는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규정하는 수행기준을 의미하거나, 학생들이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이러한 미국의 성취기준 운동은 실제적인 수업과 평가의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들, 교육 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과 평가의 기준에 대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 지원을 특정한 성취수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음악교육자협회(MENC)는 1974년 발간한 ‘학교 음악 프로그램(The School Music Program)’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수준 높은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 인력, 시설, 장비, 기타 지원 수준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일반인과 교육자가 각 학교의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로서 이상적인 학교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했다. 1986년 발간된 ‘학교 음악 프로그램(The School Music Program)’의 두 번째 판은 교육감 및 교장, 주 교육부 및 주 음악 감독관, 음악 교육자, 일반인 등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많은 그룹에서 이 프로그램을 참조하고 인용했다(Mark, 1999). 또한 1994년 미국 음악 교육자협회(MENC)는 기준(Standards)을 중심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행동 수 있는 9가지의 내용 기준과 학습의 구체적인 성과를 표현하는 성취기준이 포함되었다(Lee, Jang & Park, 2012).

2. 성취기준

1) 성취기준의 개념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도 높은 학습 성과를 추구하고자 성취기준을 도입하려는 변화의 흐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취평가제’이다. 성취평가제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성취기준을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학생 개인의 능력에 대한 진단과 성장을 목표로 한다(Lee et al.,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에 따르면, ‘성취기준’은 각 교과수업에서 학생이 배워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평가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교수 활동, 학습 활동, 평가활동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국가는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이경언 외(Lee et al., 2016)는 성취기준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수업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수업을 마친 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합쳐서 나타낸 교수·학습 활동의 기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준거 성취기준’이란 성취기준을 학교 수업 중 평가의 맥락에서 준거로 활용하도록 재구조화한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성취기준을 그대로 활용하여 평가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시선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 어떤 행동

을 성취해야 하는지, 교사의 시선에서는 어떤 내용을 수업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성취기준을 재구성한 것이다. ‘평가기준’이란 교사가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이 도달한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준거 성취기준에 대해 3단계(상/중/하)로 구분하고, 이에 도달한 학생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한 것을 의미한다. ‘단원/영역별 성취수준’은 각 단원 또는 영역과 관련되는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이 학습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지식, 기능, 태도에 도달한 정도를 서술한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 평가를 몇 단계로 나누느냐에 따라 5단계 혹은 3단계로 나눈다(A/B/C/D/E의 혹은 A/B/C). 이때 성취 수준의 의미는 각 단원에 포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나 평가준거 성취기준을 열거한 것이 아니고, 단원 또는 영역 내에 구성된 성취기준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개괄적인 특성과 모습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진술한 것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취기준: 학생들이 교과수업을 통해 학습해야 할 내용과, 수업을 마친 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능력을 합쳐서 진술한 것으로써 수업 활동의 기준이 됨.

평가준거 성취기준: 학생에게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교사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재구조화 한 것.

평가기준: 학생들이 각 평가준거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3단계(상/중/하)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을 이해했는지 기술한 것.

단원/영역별 성취기준: 각 단원/영역에 해당하는 수업이 마쳤을 때 학생이 학습하기를 바라는 지식, 기능, 태도의 도달 정도를 진술한 것(A/B/C 혹은 A/B/C/D/E).

2) 음악교과 성취기준

이경언 외(Lee, Jang & Park, 2012)에 따르면, 음악 교과 성취기준은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등장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후속으로 개발되었다.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문서에 등장한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이며, 이때부터 성취기준의 관점에서 내용 체계가 구성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제시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성취기준의 수가 늘어나고, 표현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 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2022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감상영

역의 성취기준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2; 2015; 2022)

2009 개정 교육과정: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 (1)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 (1)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 음악을 듣고 현대 사회에서 음악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9음02-01]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9음02-02]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9음02-01] 음악을 듣고 다양한 음악 요소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9음02-0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음악의 구성을 파악한다.

[9음02-03] 다양한 시대·사회·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배경과 역할을 비교한다.

[9음02-04]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다양한 감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9음02-05]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찾아 듣고, 세계 속 국악의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인식한다.

III. 연구 방법

음악교육 관련 동향 연구에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를 위해 박지현, 김용희(Park & Kim, 2012)의 연구, 현경실(Hyun, 2018)의 연구와 유하양(You, 2023)의 연구 방법을 참고하였다. 박지현과 김용희(Park & Kim, 2012)는 동향 연구에서 ‘연도·학위수여기관’, ‘연구대상학년’,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영역’, ‘사용한 교수·학습전략’의 6가지 최종 준거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논문을 분석하였다. 현경실(Hyun, 2018)은 riss, kiss, dbpia를 활용하여 관련 논문을 검색 및 발견하였으며, 이후 논문

의 제목, 학술지, 연도, 저자 등을 엑셀로 정리 및 분류하였다. 유하양(You, 2023)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제목, 초록 등에서 논문의 주제를 검색하였으며, 추출된 논문 중 주제에서 벗어난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제어를 검색하고 분석 대상을 추린 뒤, 각 논문들을 분류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동향 연구를 실시하였다.

1. 분석 대상

성취기준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대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1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3년까지 실시된 교육과정 성취기준 관련 국내 연구 논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단계를 거쳐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국내 학술논문들과 학위논문에 대해 riss, kiss, dbpia에서 ‘음악 교육과정 성취기준’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제어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3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성취기준과 관련되지 않은 논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술 논문 16편과 학위수여논문 12편을 분석 대상으로 정했으며,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저자, 연도, 제목과 관련 기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술논문

- 이경언 외(Lee, Jang & Park, 2012): 「음악과 성취기준의 개발 양상 및 개선 방향 고찰」 / 한국음악교육학회
- 이영미(Lee, 2015): 「심동(Psychomotor)영역의 음악교과 성취평가에 기초한 성취기준, 수준 진술문 개발방안: 고등학교 전문교과 시창,청음을 중심으로」 / 한국예술교육학회
- 정미영(Jung, 2017):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고등학교 국악감상 지도 내용 구성 방안」 / 한국국악교육학회
- 조선옥(Cho, 2017):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수행평가의 성취 기준 양상 탐색」 / 한국음악교육학회
- 김지혜(Kim, 2017): 「음악과 역량과 성취기준 간의 연관성 분석」 / 한국음악교육학회
- 윤문정(Yoon, 2018): 「실용음악 활용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인식 조사: 학교 음악 수업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 한국음악교육공학회
- 양소영(Yang, 2019a):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초등 3학년 표현 영역 성취기준의 교과서 실행 양상 분석」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양소영(Yang, 2019b): 「2009 개정 및 2015 개정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에 대한 고찰」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김지혜(Kim, 2019):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반영된 음악 교과 역량 분석」 / 한국음악교육학회
- 김은주(Kim, 2020):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에 따른 2015 개정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 / 한국예술교육학회
- 박세훈, 장인실(Park & Chang, 2021): 「성취기준 내용분석을 통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역량 분석」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박지현, 김지현(Park & Kim 2021):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핀란드를 중심으로」 / 한국음악교육학회
- 석문주, 최미영(Seog & Choi, 2022): 「빅 아이디어 중심 음악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구성 방식」 / 미래음악교육학회
- 함성규, 승윤희(Hahm & Seung, 2023): 「우리나라 음악 교육과정의 창작 내용 고찰과 외국 음악 교육과정과의 창작 내용 및 성취기준 비교 연구」 / 미래음악교육학회
- 김재희(Kim, 2023): 「2022 음악과 교육과정 교과역량과 성취기준 재구성에 따른 중학교 블렌디드 감상수업 연구」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장근주, 박영주(Jang & Park, 2023): 「초·중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간 연계성 분석」 / 한국예술교육학회

2) 학위논문

- 강열혁(Kang, 2014):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평가의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에 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광정연(Kwak,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평가제의 성취기준·성취수준 지표 개발 방안 연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효진(Jung, 2016):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 국악 내용 분석 : 내용 영역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염용우(Yeum, 2017): 「스마트 교수·학습 자료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수업이 음악과 성취기준 도달에 미치는 영향」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현정(Park, 2018): 「한국과 뉴질랜드 음악과 성취기준에 나타난 핵심역량 요소 비교 연구」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선호(Byun,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의 국악 내용 연구」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Kim,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의 서양 음악사 분석」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혜(Kim, 2018): 「2015 개정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성취 기준 개선 방향」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노관우(Noh, 2018): 「고등학교 단계에서 산조의 성취수준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지수(Roh,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평가제를 적용한 중학교 음악과 수행 평가 방안」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가희(Lee, 2022): 「2009 ·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평가기준 · 성취수준 비교 연구」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해리(Kim, 2023): 「사회정서학습(SEL)의 핵심역량 측면에서 살펴본 2022 개정 음악 과 교육과정 분석」 /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연도와 학술기관, 학위 수여 기관의 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몇 편의 논문이 어느 기관에서 게재 및 수여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주제 분석을 통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대상 논문들에 대해 연구주제를 분류할 수 있는 5개의 기준을 산출하여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셋째, 연구 방법에서는 문헌연구, 양적연구, 혼합연구를 분석 기준으로 삼되,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 가장 주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학교급 분석을 통해 해당 연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급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했으며, 이에 적용되지 않는 연구인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해당 연구의 성취기준이 얼마나 등장하는지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넷째와 다섯째는 본 연구의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접 고안하였다. 분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Analysis criteria

| No. | Analysis criteria |
|-----|---|
| 1 | Publication institution on year |
| 2 | Research theme |
| 3 | Research method |
| 4 | School level(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
| 5 | Achievement standard frequency |

IV. 연구 결과

1. 발행 연도에 따른 관련기관(학술기관, 학위수여기관) 분석

성취기준과 관련한 연구의 비중은 학술논문이 16편, 학위수여논문이 12편으로 학술논문이 4편 더 많았다. 학술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해인 2017년에는 4편이 게재되었으며, 학위수여논문은 2018년에 최대 6편이 발행되었다. 학술논문은 2017년부터 간헐적으로 3편씩 발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학위수여논문은 2018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1년에 1편 이하로 발표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6> 논문 종류에 따른 동향 연구 학술논문과 학위수여논문을 합친 성취기준 관련 연구는 2018년에 7편으로 최대치를 보였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씩 잦아들다가 2023년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Table 2> Research trends on paper types

| Year | Academic paper | Dissertation | Total |
|------|----------------|--------------|-------|
| 2011 | | | 0 |
| 2012 | 1 | | 1 |
| 2013 | | | 0 |
| 2014 | | 1 | 1 |
| 2015 | 1 | 1 | 2 |
| 2016 | | 1 | 1 |
| 2017 | 3 | 1 | 4 |
| 2018 | 1 | 6 | 7 |
| 2019 | 3 | | 3 |
| 2020 | 1 | | 1 |
| 2021 | 2 | | 2 |
| 2022 | 1 | 1 | 2 |
| 2023 | 3 | 1 | 4 |
| N | 16 | 12 | 28 |

학술기관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한국음악교육학회가 가장 많은 5편을 발표하였고, 뒤이어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편, 한국예술교육학회 3편, 미래음악교육학회에서 2편, 그리고 한국국악교육학회와 한국음악교육공학회는 각각 1편씩을 발표하였다. 학위수여기관에서는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과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각각 3편을 발표했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1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Table 3> Analysis of papers by publication institution

| Type of papers | Publication institution | Total |
|----------------|--|-------|
| Academic paper | Association for Future Music Education | 2 |
| |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 4 |
| | Society For Korean Music Educator'S | 1 |
| | Korean Association Of Arts Education | 3 |
| | The Korean Society of Music Education Technology | 1 |
| |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 5 |
| Dissertation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Konkuk University) | 1 |
|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1 |
|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Sangmyung University) | 3 |
| | Graduate School(Seoul National University) | 1 |
|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Yonsei University) | 1 |
|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Jeju National University) | 1 |
|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Chung-Ang University) | 3 |
|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1 |
| <i>N</i> | | 28 |

2. 연구 주제 분석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구 주제를 분류한 결과, 교사의 인식조사, 성취기준의 개발, 성취기준의 분석, 지도내용의 구성, 평가도구의 개발의 5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연구 주제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성취기준의 분석으로 18편(64.3%)이었다. 이 중에는 성취기준이 학교급이나 교과서 안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대한 분석 연구, 역량과 성취기준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외국 음악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구성 및 성취기준에 제시된 역량을 국내 성취기준과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 외에도 성취기준 진술 방식이나 내용 체계에 대한 분석 연구, 성취기준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관계와 연관성, 사회정서 학습과 음악 교과 성취기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포함되었다. 성취기준 분석에 관한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꾸준히 실시되어 오고 있다. 2018년에 4편으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다가 이후 1편~3편씩 2023년까지 매년 연구가 진행되었다.

성취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는 5편(17.9%)이었다. 주로 음악 교과에서 성취기준의 개념을 분석하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거나, 성취기준 진술문, 성취기준 지표 등에 대한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실시된

이후에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도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는 3편(10.7%)이었다. 국악 지도의 내용과 블렌디드 감상 수업 방안에 대한 연구, 스마트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한 음악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다. 2017년과 2023년에 실시되었다.

평가도구 개발과 교사의 인식조사에 해당하는 연구는 각각 1편이었다. 평가도구 개발의 경우 성취평가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수행평가 방안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었으며, 교사 인식조사는 교육대학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성취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실용음악의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였다. 둘 다 2018년에만 실시되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 7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행되었다. 교사 인식조사, 성취기준 개발, 평가도구 개발 관련 주제의 논문이 각각 1편씩, 성취기준 분석에 대한 논문이 4편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에는 성취기준 분석과 지도내용 구성 관련 논문이 각각 2편씩 총 4편, 2023년에는 성취기준 분석 3편, 평가도구 개발 관련 논문 1편으로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Table 4> Analysis of papers by research theme

| Year | Teacher awareness | Development of standard | Analysis of standard | Contents of teaching materials |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 | Total |
|------|-------------------|-------------------------|----------------------|--------------------------------|----------------------------------|--------|
| 2011 | | | | | | 0 |
| 2012 | | 1 | | | | 1 |
| 2013 | | | | | | 0 |
| 2014 | | 1 | | | | 1 |
| 2015 | | 2 | | | | 2 |
| 2016 | | | 1 | | | 1 |
| 2017 | | | 2 | 2 | | 4 |
| 2018 | 1 | 1 | 4 | | 1 | 7 |
| 2019 | | | 3 | | | 3 |
| 2020 | | | 1 | | | 1 |
| 2021 | | | 2 | | | 2 |
| 2022 | | | 2 | | | 2 |
| 2023 | | | 3 | 1 | | 4 |
| N | 1 | 5 | 18 | 3 | 1 | 28 |
| % | 3.6% | 17.9% | 64.3% | 10.7% | 3.6% | 100.0% |

3. 연구 방법 분석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양적연구, 혼합연구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문헌연구로써 총 25편(89.3%)에 해당했다. 그다음으로는 양적연구 2편(7.1%), 혼합연구 1편(3.6%)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문헌연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문헌연구는 201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2018년 6편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는 2~3편의 수준으로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양적연구는 2017년과 2018년에 1편씩 실시되었으며, 혼합연구는 2023년에 1편 실시되었다.

<Table 5> Analysis of papers by research method

| Year | Literature research | Quantitative research | Mixed research | Total |
|------|---------------------|-----------------------|----------------|--------|
| 2011 | | | | 0 |
| 2012 | 1 | | | 1 |
| 2013 | | | | 0 |
| 2014 | 1 | | | 1 |
| 2015 | 2 | | | 2 |
| 2016 | 1 | | | 1 |
| 2017 | 3 | 1 | | 4 |
| 2018 | 6 | 1 | | 7 |
| 2019 | 3 | | | 3 |
| 2020 | 1 | | | 1 |
| 2021 | 2 | | | 2 |
| 2022 | 2 | | | 2 |
| 2023 | 3 | | 1 | 4 |
| N | 25 | 2 | 1 | 28 |
| % | 89.3% | 7.1% | 3.6% | 100.0% |

4.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분석

성취기준 관련 국내 연구들의 대상 학교급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은 초등학교로써, 총 10편(35.7%)에 해당한다. 그다음으로는 고등학교 9편(32.1%), 중학교 3편(10.7%) 순으로 적용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7.1%)이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각 1편(3.6%)이었다. 나머지 2편(7.1%)은 음악과 교육

과정 국제 비교 연구, 음악과 성취기준의 개발 양상 및 개서 방향 고찰 연구로서 기타로 분류하였다.

<Table 6> Analysis of papers by school level

| Year | Elementary school | Middle school | High school | Elementary & middle school | Middle & high school | Elementary, middle & high school | Etc. | Total |
|------|-------------------|---------------|-------------|----------------------------|----------------------|----------------------------------|------|--------|
| 2011 | | | | | | | | 0 |
| 2012 | | | | | | | 1 | 1 |
| 2013 | | | | | | | | 0 |
| 2014 | | | 1 | | | | | 1 |
| 2015 | | | 2 | | | | | 2 |
| 2016 | | | 1 | | | | | 1 |
| 2017 | 3 | | 1 | | | | | 4 |
| 2018 | 2 | 2 | 3 | | | | | 7 |
| 2019 | 3 | | | | | | | 3 |
| 2020 | 1 | | | | | | | 1 |
| 2021 | | | | | | 1 | 1 | 2 |
| 2022 | | | 1 | 1 | | | | 2 |
| 2023 | 1 | 1 | | | 1 | 1 | | 4 |
| N | 10 | 3 | 9 | 1 | 1 | 2 | 2 | 28 |
| % | 35.7% | 10.7% | 32.1% | 3.6% | 3.6% | 7.1% | 7.1% | 100.0% |

5. 성취기준 빈도 분석

연구 대상 논문에 대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성취기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빈도를 분석하여 영역별로 성취기준의 비중을 파악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고등학교 과목은 ‘음악’이 아닌,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로 구성되어 있어 성취기준에서 제외하였고,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이지만, 성취기준을 따로 나누지 않는 연구인 경우엔 ‘기타’로 분류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다룬 성취기준 관련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성취기준만 반복하여 등장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창작활동과 관련 있는 성취기준이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예컨대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성취기준에는 ‘[음4131] 상황이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음4132]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 ‘[음4133] 제재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가 등장하였으며,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는 ‘[음6131]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음6132]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 ‘[음6133]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와 같이 창작 요소가 반영된 성취기준이 각각 3번 등장하였다. 기타 나머지 성취기준은 2회씩 등장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빈도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3~4학년

① 표현

- [음4111]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를 수 있다: 2회
- [음4112]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2회
- [음4121]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회
- [음412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2회
- [음4123] 악곡을 외워서 혼자 또는 여럿이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회
- [음4124] 동요나 민요를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2회
- [음4131] 상황이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3회
- [음4132]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 3회
- [음4133] 제재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3회

② 감상

- [음4211]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2회
- [음4221] 표제 음악 등을 듣고 악곡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회
- [음4222] 노동요, 놀이요, 춤곡, 행진곡 등을 듣고 음악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회

③ 생활화

- [음4311]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2회
- [음4321] 생활 속에서 우리 음악을 찾아 볼 수 있다: 2회

(2) 초등학교 5~6학년

① 표현

- [음6111]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2회
- [음6112]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2회
- [음612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회

- [음612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2회
 [음6123] 악곡의 특징을 살려 혼자 또는 여럿이 외워서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회
 [음6124] 동요나 민요, 시조의 초창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2회
 [음6131]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3회
 [음6132]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 3회
 [음6133]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3회

② 감상

- [음621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2회
 [음6221]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회
 [음6222] 의식 음악, 축제 음악, 풍류 음악 등을 듣고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회

③ 생활화

- [음6311]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며 즐길 수 있다: 2회
 [음6321] 우리 음악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2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다룬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성취기준의 빈도수가 많았다. 초등학교 3~4학년군의 '[4음01-05] 주변의 소리를 탐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와 '[4음01-04] 제재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한다.'라는 성취기준은 각각 9번, 8번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5~6학년군을 포함하여 대부분에서 이 같은 성취기준이 5~7회씩 등장하였다. 또한 중학교의 성취기준은 1~2회씩 고르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감상 영역의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가 5회,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가 4회 등장하였다.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1~3회씩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빈도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3~4학년

① 표현

- [4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6회
 [4음01-0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6회
 [4음01-03]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 7회
 [4음01-04] 제재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한다: 8회
 [4음01-05] 주변의 소리를 탐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9회

[4음01-06]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거나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한다: 6회

② 감상

[4음02-01]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6회

[4음02-02] 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발표한다: 7회

③ 생활화

[4음03-01] 음악을 활용하여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7회

[4음03-02] 음악을 놀이에 활용해보고 느낌을 발표한다: 7회

[4음03-03]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악을 찾아 발표한다: 6회

(2) 초등학교 5~6학년

① 표현

[6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5회

[6음01-0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5회

[6음01-03]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 6회

[6음01-04]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한다: 6회

[6음01-05]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7회

[6음01-06]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 부르거나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한다: 5회

② 감상

[6음02-0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5회

[6음02-02]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6회

③ 생활화

[6음03-01] 음악을 활용하여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5회

[6음03-02] 음악이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6회

[6음03-03] 우리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음악 문화유산을 찾아 발표한다: 6회

(3) 중학교

① 표현

[9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1회

[9음01-02]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1회

[9음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2회

[9음01-04]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한다: 1회

[9음01-05]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한다: 1회

② 감상

[9음02-01]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1회

[9음02-02] 다양한 연주 형태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1회

[9음02-03]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한다: 2회

③ 생활화

[9음03-01]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2회

[9음03-02] 음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2회

[9음03-03]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2회

(4) 고등학교

① 표현

[12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2회

[12음01-02]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2회

[12음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음악 작품을 만든다: 2회

[12음01-04]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음악 작품을 만든다: 2회

[12음01-05] 바른 자세와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표현한다: 2회

② 감상

[12음02-01]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2회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4회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5회

③ 생활화

[12음03-01]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3회

[12음03-02]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3회

[12음03-03] 국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3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다룬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성취기준이 각각 21회, 초등학교는 20회 등장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의 성취기준은 창작영역의 '[4음03-04] 생활 주변의 소리나 장면을 모방하며 음악의 새로움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와 '[6음03-03] 음악의 요소를 활용하여 간단한 음악을 만든다.'가 2회씩 등장하였고, 나머지는 1회 이하로 등장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감상 영역의 '[9음02-0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음악의 구성을 파악한다.’와 ‘[9음02-03] 다양한 시대 · 사회 ·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배경과 역할을 비교한다.’가 3회씩 등장하였고, 나머지 성취기준은 1~2회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성취기준이 1~2회씩 비교적 고르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빈도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3~4학년

① 연주

- [4음01-01] 바른 자세와 주법을 익혀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0회
- [4음01-02] 기초적인 음악 요소를 살려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고 느낌을 이야기한다: 0회
- [4음01-03] 노래와 악기 연주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이나 놀이를 하며 음악을 즐긴다: 1회
- [4음01-04] 생활 속에서 음악을 경험하며 연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0회

② 감상

- [4음02-01] 음악을 듣고 기초적인 음악 요소를 탐색하며 반응한다: 0회
- [4음02-02]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을 발견한다: 1회
- [4음02-03]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쓰임을 이야기한다: 0회
- [4음02-04]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느낌과 호기심을 갖고 즐긴다: 1회
- [4음02-05] 우리 지역의 음악 문화유산을 찾아 듣고 국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 1회

③ 창작

- [4음03-01] 느낌과 상상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며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갖는다: 1회
- [4음03-02] 악곡의 일부를 바꾸어 표현하고 간단한 악보로 나타낸다: 1회
- [4음03-03] 기초적인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소리나 음악으로 표현한다: 1회
- [4음03-04] 생활 주변의 소리나 장면을 모방하며 음악의 새로움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 1회

(2) 초등학교 5~6학년

① 연주

- [6음01-01] 바른 주법과 표현 기법을 익혀 노래나 악기로 느낌을 담아 연주한다: 0회
- [6음01-02] 음악 요소를 살려 노래나 악기로 발표하고 과정을 돌아본다: 0회
- [6음01-03] 소리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표현한다: 0회
- [6음01-04] 간단한 형태의 연주를 준비하여 생활 속 음악 활동에 참여한다: 1회

② 감상

[6음02-01] 음악을 듣고 음악의 요소를 감지하며 구별한다: 0회

[6음02-02]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음악의 간단한 구성을 인식한다: 1회

[6음02-03]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배경과 활용을 설명한다: 1회

[6음02-04] 생활 속에서 음악을 찾아 들으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감한다: 1회

[6음02-05] 우리나라 음악 문화유산을 찾아 듣고 국악의 가치를 인식한다: 1회

③ 창작

[6음03-01] 느낌과 아이디어를 떠올려 여러 매체나 방법으로 자신감 있게 표현한다: 1회

[6음03-02] 기초적인 기보를 활용하여 간단한 조건에 따라 악곡의 일부를 바꾼다: 1회

[6음03-03] 음악의 요소를 활용하여 간단한 음악을 만든다: 2회

[6음03-04] 생활 주변 상황이나 이야기를 활용하여 음악을 만들며 열린 태도를 갖는다: 2회

(3) 중학교

① 연주

[9음01-01] 다양한 주법과 표현 기법을 향상시켜 노래나 악기로 개성 있게 연주한다: 1회

[9음01-02] 음악 요소와 음악적 특징을 살려 노래나 악기로 발표하고 평한다: 1회

[9음01-03] 소리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함께 표현한다: 1회

[9음01-04] 생활 속 다양한 형태의 연주에 참여하고 전통과 현대의 연주 문화 다양성을 인식한다: 1회

② 감상

[9음02-01] 음악을 듣고 다양한 음악 요소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2회

[9음02-0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음악의 구성을 파악한다: 3회

[9음02-03] 다양한 시대 · 사회 ·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배경과 역할을 비교한다: 3회

[9음02-04]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다양한 감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2회

[9음02-05]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찾아 듣고, 세계 속 국악의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인식한다: 1회

③ 창작

[9음03-01] 음악적 의도나 아이디어를 여러 매체나 방법에 적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창작한다: 1회

[9음03-02] 오선보, 정간보 등의 기보법을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악곡의 일부를 바꾼다: 1회

[9음03-03] 음악의 요소와 특징을 활용하여 간단한 형식의 음악을 만든다: 2회

[9음03-04] 생활 속의 영역과 연계하여 음악을 만들고 활용하며 책임감을 갖는다: 2회

(4) 고등학교

① 연주

[12음01-01] 다양한 주법과 표현 기법을 심화시켜 노래나 악기로 개성 있게 연주한다: 1회

[12음01-02] 음악 요소와 음악적 특징의 변화를 살려 노래나 악기로 발표하고 비평한다: 2회

[12음01-03] 소리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적용하여 표현하며 연주로 소통한다: 1회

[12음01-04]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연주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서로 다른 연주 문화를 존중한다: 2회

② 감상

[12음02-01] 음악을 듣고 다양한 음악 요소와 원리를 인지하며 분석한다: 1회

[12음02-02] 다양한 시대 · 사회 ·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구성의 변화를 해석한다: 2회

[12음02-03] 다양한 시대 · 사회 ·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맥락, 기능, 기여의 관점에서 비평한다: 2회

[12음02-04]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감성, 정체성, 가치를 내면화하고 향유한다: 2회

[12음02-05] 시대별 국악을 듣고 비평하며, 국악을 계승 ·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갖는다: 2회

③ 창작

[12음03-01] 다양한 맥락과 연계되는 음악적 의도나 아이디어를 여러 매체나 방법에 적용하여 창작하고 성찰한다: 2회

[12음03-02] 오선보, 정간보 등의 다양한 기보법을 활용하여 주제에 맞게 악곡을 변화시킨다: 1회

[12음03-03] 음악 요소와 음악적 특징의 변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만든다: 1회

[12음03-04] 생활 속에서 여러 영역과 융합한 음악을 만들며, 저작권의 중요성 및 음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하여 인식한다: 2회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관련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고찰하여 국내 음악교육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동향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성취기준을 주제로 한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28편을 대상으로 발행 연도와 기관, 연구 주제, 연구 방법, 개정 교육과정과 영역, 성취기준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취기준에 따른 연구는 학술논문이 16편, 학위논문이 12편으로 학술논문이 더 많은 편이었으며, 2018년에 7편이 발행될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1편 이상씩 연구가 실시되는 모습을 보였다. 성취기준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학위수여기관 보다는 학술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학술기관이 16편, 학위수여기관이 12편으로 학술기관에서 성취기준과 관련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학술기관과 학위수여기관을 합쳐 연구 수가 총 28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연구의 규모가 아직은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취기준과 관련한 연구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둘째, 연구주제는 성취기준 분석이 18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취기준 개발, 지도내용 구성, 교사 인식조사와 평가도구 개발 순서로 이어졌는데, 이들 모두를 합해도 성취기준 분석 연구에 비하면, 연구 수가 적었다. 따라서 성취기준 분석에 편중하기보다는 더 다양한 주제로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성취기준이 수업과 평가의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이를 수행하는 교사는 성취기준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음악 교과의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는 성취기준 진술 방식, 최소 성취수준의 개념과 이를 음악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가 25편으로 가장 많았고, 양적연구 2편, 혼합연구 1편으로 실시되어 문헌연구에 쏠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질적연구는 1편도 없었으며, 혼합연구도 1편에 불과했다. 따라서 성취기준 관련하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더욱 많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성취기준을 수행했을 때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나,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학교급별 분석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편, 고등학교 대상 연구가 9편이었으며, 중학교는 3편에 그쳤다. 학교급을 통합하여 연구한 논문은 각각 1~2편이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대상 연구가 제일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급에서 더 다양한 수준으로, 더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급을 나눠서 실시되는 연구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서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고려한 연구도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빈도를 분석했을 때, 2009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서는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성취기준만 등장하였으며, 가장 많이 등장한 성취기준은 창작과 관련된 성취기준으로, 각각 3회씩 등장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서대로 성취기준의 빈도수가 많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은 5회 이상씩, 중학교는 1~2회씩 고르게 등장한 편이었으며, 고등학교도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 2개를 제외하고는 1~3회씩 고르게 등장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성취기준이 0~2회씩 대부분 고른 편으로 등장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는 초등학교 위주의 성취기준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최근에 실시되는 연구일수록 성취기준이 학교급별로, 영역별로 고르게 등장하는 양상이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성취기준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학교급별로, 또한 교육과정의 영역(표현, 감상, 생활화 혹은 창작, 감상, 기악)에서 골고루 연구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성취기준의 분석과 활용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지속가능교육, 융합교육,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사례와 접목하여 성취기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관련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음악수업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기초 연구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체제의 다양한 음악교육 연구가 수행되길 희망한다.

References

- Byun, S. H. (2018). A study on the cont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high school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standard by the 2015 revised curriculum. Master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Cho, S. O. (2017). A study on the achievement standards for 3rd and 4th grade elementary school music performance assessme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175-204.
- Hahm, S. K., & Seung, Y. H. (2023). A review of the creative contents of the music curriculum in Korea and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eative contents and achievement criteria of music curricula in foreign countries.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8(2), 73-101.

- Hyun, K. S. (2018).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music educational psycholog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1), 147-168.
- Jang, G. J. (2019). Reconstruction of competency based music curriculum.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9, 29-49.
- Jang, G. J., & Park, Y. J. (2023).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21(3), 153.
- Jung, H. J. (2016). Analysis on Korean traditional music in high school music textbook “Music & Life” based on 2009 curriculum revision: Focused on contents and standard of accomplishment.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Jung, M. Y. (2017). Approaches to appreciating Korean music in Korean high schools by the revised musical curriculum of 2015.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43, 143-168.
- Kang, Y. H. (2014). A study on 2009 revised music curriculum achievement evaluation standards and levels: Focused on advanced music major performance curriculum. Master thesis, Yeonsei University.
- Kim, D. C. (2016). The meaning and role of moral subject achievement standard.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9, 199-218.
- Kim, E. J. (2020). Analysis of achievement standards of 2015 revised elementary music curriculum based on Bloom’ revised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1), 85-100.
- Kim, H. (2018). An analysis on western music history in 10 types of high school music textbooks based on the achievement standards by the 2015 revised curriculum. Master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Kim, H. R. (2023). An analysis of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on core competencies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Based on middle and high schools.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 Kim, J. H. (2017).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ies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music curriculum. *Proceedings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Conference*, 2017(2), 143-147.
- _____ (2018). Improvement directions for achievement standards to implement the subject competencies in 2015 revised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music education.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19). Analysis of subject competencies reflect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1), 33-51.
- Kim, J. H. (2023). A study on the middle school blended appreciation class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core competencies and achievement standards by the 2022 music curriculu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5), 403-416.
- Kim, J. S. (1999). A comparative study of the curriculum—based assessment standards movement in Americ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7(2), 339-362.
- Kim, S. Y., & Kim, M. J. (2020). A study on the trend of music classes using mobile app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2), 41-67.
- Kwak, J. Y. (2015). A study on 2009 revised curriculum achievement evaluation standards and levels: For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of advanced music major curriculum in 10-12th grade students. Master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 Kwon, H. J., & Kim, M. J. (201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musical education in Korea using the instructional media.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0), 91-109.
- Lee, G. H. (2022).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hievement standards, evaluation standards, and achievement level of high school music curriculum revised in 2009 · 2015: Focused on the selected curriculum.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Lee, K. E. (2022). The perception of middle school music teache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national music curriculum. *Educational Research*, 83(1), 113-133.
- Lee, K. E., Jang, G. J., & Park, J. H. (2012). Suggestions for content and improvement of achievement standards i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1), 113-140.
- Lee, M. K., Jung, Y. G., Kwon, J. R., Lee, G. H., Kim, H. K., Lee, J. Y., Lee, M. A., Ga, E. A., Kim, H. S., Park, E. A., Park, J. D., Kim, H. K., Jin, E. N., Kim, K. C., Lee, K. E., Yang, Y. J., Joo, H. M., Baek, K. S., Kim, K. H., Han, H. J., Jang, H. S., Lee, G. N., Seo, M. C., Jung, Y. S., & Lee, S. S. (2016).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2015 curriculum*.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Y. M. (2015).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sight-singing and hearing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psychomotor domain in music.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3(1), 133-150.

- Lim, Y. N. (2016). A study on the ways of presenting key competencie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implications from the Scotland's 'curriculum for excellen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5), 143-167.
- Mark, M. L. (1999). Music education since mid-century: The role of the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33(3), 79-92.
- Ministry of Education (2012). *Standards of achievement, levels of achievement, aligned to the 2009 revised curriculum(middle school music)*. Seoul: Author.
- _____ (2012). *Music curriculum*. No. 2011-361. [Supplementary 12]. Seoul: Author.
- _____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2]. Sejong: Author.
- _____ (2017).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explanation: High school*. Sejong: Author.
- _____ (2022). *Music curriculum*. No. 2022-33. [Supplementary 12]. Sejong: Author.
- Noh, K. W. (2018). A study on the accomplishment levels and evaluation standard of Sanjo at the high school level.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Park, E. S. (2021). Research trends of developmental research in international music education journal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3), 79-97.
- Park, H. J. (2018).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New Zealand music curricula based on key competencies in achievement standard. Master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Park, J. H., & Kim, J. H. (2021). Comparative analysis of music curriculum: Focusing on USA,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Singapore, Germany, France, and Finlan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4), 71-92.
- Park, J. H., & Kim, Y. H. (2012). Research trends of master's theses on elementary music creation teaching and learning. *Music Theory Forum*, 19, 49-72.
- Park, S. H., & Chang, I. S. (2021). An analysis of competence by analyzing achievement standards of 2015 revised subject curriculu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9), 117-131.
- Roh, J. S. (2018).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in middle school music using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Seog, M. J., & Choi, M. Y. (2022). Analysis of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 in big idea-based music curriculum.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7(2), 27-49.
- Shin, H. K. (2022). Teacher perceptions of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50, 1-19.
- Sung, Y. K. (2005). Trends and evaluation of curriculum debates on standards movement in the U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1(1), 215-234.
- Yang, S. Y. (2019a). Applica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expression section of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for 3rd graders to school textbook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5), 581-600.
- _____ (2019b). Descrip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for 2009 and 2015 revised elementary school music curriculu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1013-1033.
- _____ (2020).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course-centered assessments according to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727-747.
- Yeum, Y. W. (2017). Smart, applied learning material committee meeting at an elementary school music and impact to get music and performance. Master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Yoon, M. J. (2018). An investigation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s of using applied music: Focusing on school music clas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music curriculum.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6), 107-121.
- _____ (2020). Trends of assessment research i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4), 153-173.
- You, H. Y. (2023).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on music teacher agency: Implications for curriculum practice research.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2(3), 25-51.